

“학교, 지역소멸 막는 거점으로 탈바꿈”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전북형 학교 복합플랫폼 구축 공약 제시… 지역 공공 인프라 재정의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를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북형 학교 복합플랫폼'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16일 "학교를 무조건 유지하거나 줄이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기능을 확장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 교육생태계의 구심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공공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교육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교육부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70%까지 국비를 지원하며, 돌봄이나 AI 교육 등과 연계할 경우 최대 80%까지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리된 주체가 아니라 공동 설계와 공동 책임 구조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을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통합 정책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규모가 통상 100억원에서 150억원 수준에 달하는 만큼 적극적인 재원 확보 전략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교복합시설 99곳이 선정된 가운데 전북은 6곳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또는 폐교를 활용해 교육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가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를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방식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며 "전북형 학교복합플랫폼을 통해 교육·복지·문화·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는 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을 제시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회복적 학교' 접근과 같은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해 갈등 해결 방식을 차별 중심이 아닌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 사업 참여 확대, 교육청과 지자체 공동 매칭 구조 구축, 유유 교실과 폐교 리모델링 활용 데이터 기반 예산 및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학교를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방식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며 "전북형 학교복합플랫폼을 통해 교육·복지·문화·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을 연계하는 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발달 지연 유아의 성장 돕는다

전북교육청, '드림아이' 통해 조기 발견·맞춤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달 지연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 '드림아이(Dream I) 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유아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아 200여 개 기관을 선정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기기 노출 연령 하향화와 사용 시간 증가 등으로 발달 지연 영유아가 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언어 발달 지연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 '북북! 말해드림(Dream)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드림아이 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지난해 학부모 만족도 92%를 기록한 '북북! 말해드림' 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 언어 발달 지원에서 신체 발달과 사회·정서 발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관에는 규모에 따라 100만~400만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되며, 유아 발달 검사비 지원은 기본으로 △언어 발달 프로그램 '북북! 말해드림(Dream)' △신체 발달 프로그램 '건강아이(D) △사회·정서 발달 프로그램 '감성아이(K)'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뮤지컬·공연 관람, 체험학습 등 선택 프로그램과 연계한 특별 활동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운영 신청서를 작성해 전북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에 제출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 1학년

교통안전 반사경 배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반사경을 배부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도내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전원에 교통안전 반사경(옐로카드)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사경은 가방에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는 연결고리 형태로 제작돼 보행 중인 어린이의 시인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됐다.

반사경 뒷면에는 어린이 보행 안전 핵심 수칙인 '차다·보다·걷다' 문구를 넣어 등하굣길에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보행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반사경에는 애니메이션 '로보가 폴리와 함께' 캐릭터가 적용돼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인명구조 애니메이션 로보가 폴리를 제작한 (주)로이비주얼과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아 안전재활장 조성 등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내달 4일 고교 1~2학년생

대상 입시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비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를 연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2학년 대입전형 준비를 위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으로 입시 환경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교육 중심의 진학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028~2029 대입 변화에 따른 준비 전략을 주제로 서울 세종고등학교 최희원 교사가 강연에 나서 2028 대입 개편의 주요 내용과 학년별 준비 전략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까지 전북진로진학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 후 접수증을 출력해 행사 당일 지참해야 하며, 사전 신청 없이 현장 등록을 받을 경우 수용 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

최근이 전북교육청 중등교육과정은 '2028 대입제도 개편으로 고·2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변화하는 입시 환경을 이해하고 학생 맞춤형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16일 전북대학교가 양오봉 총장 주재로 반부패·청렴협의회를 연 가운데, '청렴 10대 실천 서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청렴은 실천”… 전북대, 반부패 협의회

총장 주재로 진행… 고위직 참여 협의회 통해 청렴 주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대학 청렴도 향상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총장을 중심으로 한 고위직 참여 협의회를 개최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전북대는 대학 내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관행적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총장과 처·국장 등이 참여하는 반부패·청렴협의회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총장을 중심으로 대학 주요 보직자가 참여해 각 부서의 반부패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 차원의 청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첫 협의회는 16일 오전 9시 양오봉 총장이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양 총장을 중심으로 '청렴 10대 실천 서약식'도 진행됐다. 서약식에서는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지시 및 갑질 근절, 성비위 예방 음주운전 금지, 부정청탁 금지, 특정인에 대한 부당 특혜 제공

금지, 사적 이해관계 배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직무 수행, 공공재정 및 공용재산의 부정 사용 금지, 직무 정보의 사적 이용 금지 등 10개 항목의 청렴 실천 사항을 다짐했다.

전북대는 이번 협의회 운영과 청렴 실천 서약을 통해 대학 구성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학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오봉 총장은 "대학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한 조직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며 "총장을 비롯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운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우석대, 1학기 AI 강좌 93개 운영

미래 AI 인재 양성 '속도'

우석대학교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확대를 통해 미래 산업을 이끌 AI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석대학교는 2026학년도 1학기 동안 전공과 교양을 포함해 총 93개의 AI 관련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기술 이해와 활용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 전략의 일환이다.

대학은 AI 기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전주캠퍼스와 진천캠퍼스 등 교내 8곳에 AI 활용 기반 스마트 강의실을 조성했다. 또한 교수들의 AI 활용 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AI 교수법 특강을 운영하는 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49개 학과(부)에서 'AI와 형법각론연습' 등 전공 과목 49개 강좌를 개설했으며, 교양 과정에서도 'AI와 창의적 사고' 등 44개 강좌를 운영해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오상근 기자



특히 이번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RISE 사업을 연계해 추진되며, AI 기반 교육 체계 구축과 지역 혁신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노준 총장은 "AI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AI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융합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AI 융합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1학기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추가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 참여 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전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1학기 학교 연계 공동교육과정에서 미충족 강좌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간 교육과정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 모집 기간은 16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교육과정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추가 모집 강좌는 온라인 12개와 오프라인 32개 등 총 44개 강좌다. 온라인 강좌는 '도시의 미래 탐구', '공중 보건' 등이며, 오프라인 강좌로는 '과학과 연구', '인간과 경제 활동' 등이 개설된다.

지역별로는 전주 11강좌, 남원 9강좌, 정읍 6강좌 등 다양한 지역에서 수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교원들 간 협력적 배움

실천 통한 학교문화 혁신

전북교육청, 2026 교육학습공동체 운영 지원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학습공동체 운영을 확대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원 간 협력적 배움과 실천을 통해 학교 문화를 혁신하기 위한 2026 교육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학습공동체는 개인 중심의 전문성 개발 한계를 극복하고 교원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구회와 교사연구회, 학생중심동아리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총 652개 팀을 구성해 교육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 새로운 교육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해 교실 현장의 문제를 집단지성으로 해결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교과 및 비교과 연구를 위한 심층 연구 활동인 연구회 161팀,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업 연구 중심의 교사연구회 221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중심동아리 270팀 등으로 구성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학습공동체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오는 5월부터 각 공동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컨설팅을 실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연구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회는 사업 부서별 중간 보고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교수·학습 자료 개발을 지원해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 성과가 개별 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에는 '교육학습공동체 운영의 날'을 열어 연구 결과와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오상근 기자



16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긴급 학교 행정실장과 교육기관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 역량 강화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전북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역량 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행정실장과 산업안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 연수를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각급 학교 행정실장과 교육기관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산업안전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2026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 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을 안내하고, 안전보건 의무 이행 사항과 학교 및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례, 예방 대책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안전 조치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2회 실시되는 의무 이행 사항 점검 방법으로 안내됐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현장의 관리자 관련 제도와 의무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